01 교회소식
회교국 파키스탄에 임한 축복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통해 파키스탄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

02 생명의 말씀_ 선 시리즈 12
모세의 선 (2)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고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

03 기획특집
영적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신앙 성장을 멈추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영적 게으름에 대해 알아본다.

04 간증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은혜로 축복받은 대전만민교회 김경수 집사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받은 인도 델리만민교회 낸시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579호 2013년 4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 권세 있는 영적 말씀

파키스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로 새 힘 얻은 영혼들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증하자 파키스탄 영혼들의 얼굴에 영적 생명의 빛이 드리워졌다(사진은 손수건 기도를 하고 있는 강사 길태식 목사①, 간증하는 사람들②~④, 비숍들과 함께⑤, 카라치 목회자 세미나⑥,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 8,000여 명이 모인 라호르 집회⑦).

국민의 97%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나라 파키스탄.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들고 지난 11년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 여러 지역에서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한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와 선교팀이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까지의 선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에는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를 비롯해 셰이쿠푸라, 물탄, 카라치에서 다섯 차례의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열었고, 두 차례 비숍협의회와 회동했다. 이를 통해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지·협력교회로 가입했고, 각 집회마다 많은 치료 역사가 나타나 참석자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 주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넘치는 간증

8,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라호르 지역 집회에서 길태식 목사는 '성령'(행 2:1~4)에 대해 설교했다. 또한 셰이쿠푸라 지역(6,000여 명 참석), 물탄 지역 (3,000여 명 참석), 카라치 지역(450여 명 참석) 집회에서는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에 대해 증거했다.

강사 길태식 목사의 설교 후 이어진 손수건 기도를 통해 갖가지 질병과 통증, 연약함이 치료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앞을 잘 볼 수 없었던 쉬라즈(11)는 잘 보게 됐고, 3세 때 벙어리가 된 우말 알리(8)는 말을 했다. 엉덩이 관절뼈 수술 후 지팡이에 의지해 걷던 샤키나(45)는 지팡이 없이 걷게 됐고, 나신(35)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다.

또한 오른쪽 어깨 마비로 고통받던 유샤프 마식(50)은 오른팔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됐고, 사흐릴(7)은 선천성 천식을 치료받았다. 아비드(25)는 위장 통증으로 고생하는 형제를 대신해 손수건 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했다.

아울러 이삭TV(사장 안와 파잘 목사)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를 받고 부쉬라(40)는 5년 된 머리 종양을 치료받고, 샤나즈(23)는 잉태의 축복을 받게 됐다고 간증해 은혜가 더했다.

이삭TV는 이 목사의 설교를 하루 6시간 영어, 우르두어로 파키스탄과 중동 전역에 송출하고 있다.

깊은 영적 말씀에 놀라워하며 갈급해하는 현지 목회자들

라호르 목회자 세미나 시 강사 길태식 목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에 관해 전했고, 셰이쿠푸라, 물탄, 카라치 지역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신 이유' 등에 대해 설교했다.

이 밖에도 파키스탄 연합총회장 협의회 정기 모임에 참석해 만민의 사역을 소개하고 '왜 예수만이 인류의 구세주이신가'(롬 5:8)에 대해 설교했다. 이후 라호르 비숍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파키스탄 선교 비전을 소개했다.

목회자들은 세미나 때마다 "처음 들어보는 영적인 말씀이었다."라고 감탄하며 감사해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 비전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사역하기를 희망했다.

사무엘 목사는 "나는 오랫동안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쳐 왔으나 오늘 세미나에서 새로운 말씀을 많이 알게 됐다. 앞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아시프 아슬람 목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성결의 복음과 만민의 사역이 파키스탄 전역에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이 이삭TV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시청하며 치료와 축복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목회자가 "이재록 목사님께서 인도한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파키스탄 역사상 전무한 성회였다."라고 고백해 파급효과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번 선교로 파키스탄 내의 여러 목회자협의회 및 총회장 그룹들과 연결돼 선교의 폭이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시종 함께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모세의 선 (2)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수기 12:3~7)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있으면서 고난받는 자신의 동족으로 인해 늘 번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요.

이 일이 탄로가 나자 결국 모세는 도피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때 나이 4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목동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40년의 연단을 거치면서 과거 왕자로서 지낼 때의 당당했던 자신감과 자기 의를 철저히 깨뜨리고 낮아졌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아갔을까요?

1.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습니다

민수기 12:3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신 대로 모세는 당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덕(德)을 겸한 마음입니다. 즉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하면서도 덕이 있어서 말과 행동이 반듯하고, 때로는 위엄 있게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마음을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의 여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사흘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자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믿음 없는 백성을 용납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적을 나타냈지요.

또 마라에서 물을 마신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출 16:3).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지요.

그런데도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던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란 곳으로 옮겨 장막을 쳤을 때 백성은 다시 마실 물이 없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에게 돌질을 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권능으로 백성을 인도한 모세인데도 그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시며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구했습니다(출 32:11~13). 이에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모세가 막상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이 행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1~32)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원수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품고 가려 했기에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2. 모세는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란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 이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온 집에 충성'이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일터, 사업터 등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5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백성에 대해서도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고심했지요.

그런데 백성은 너무도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늘 백성으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 낸 날부터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편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흘린 눈물과 애통의 기도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이러한 마음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뢰하며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율법을 받아 내렸고,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교통을 이룬 사람입니다(민 12:8). 그러면 모세는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에 불과했고, 정작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믿음으로 백성을 잘 인도한 결과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겼습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보다 더 겸비한 마음을 지녔지요.

여러분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겁고 너무 힘이 든다. 사명을 놓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백성으로 인해 한시도 마음 편히 눕지 못했던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 집에 충성하고도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기는 겸비한 모세의 마음을 떠올려 보며 더욱 뜨겁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선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온유한 사람이 돼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등 있는 곳에서 온 집에 충성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으름'을 버리려면

사단의 대장이 부하들에게 상금을 걸고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기독교인을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때 '이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그러자 '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가 의견을 냅니다.
"의인은 고생하고 도리어 악인은 잘사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 주면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태' 즉 '게으름'이라는 부하가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결국 누구의 의견이 채택됐을까요?

게으른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도 노력한 대가 이상을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수고는 안 하고 거저 얻으려 하는 욕심이 있으니
정도를 걷지 않고 꾀를 부리거나 요행을 바라지요.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앞에 음식을 두고도 게을러서 먹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게으름의 두 가지 속성을 살펴봄으로
신속히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1 "핑계 대는 것을 버리자"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게으른 사람은 변명하고 핑계 대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품상 수줍음이 많아서', '자신의 주변에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라고 이유를 댑니다.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라."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순종하고자 한다면 모르면 물어서 하면 되고, 지혜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핑계만 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력하지 않고 환경 탓, 주변 탓만 하다가 낙심하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누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한 대로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주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 밭을 개간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주리게 됩니다. 곧 상급도 없고 구원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같이 기도해 부지런히 마음 밭을 개간함으로 옥토로 만들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 등을 핑계 대며 낙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버리기 위해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성장을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2 "안주하는 것을 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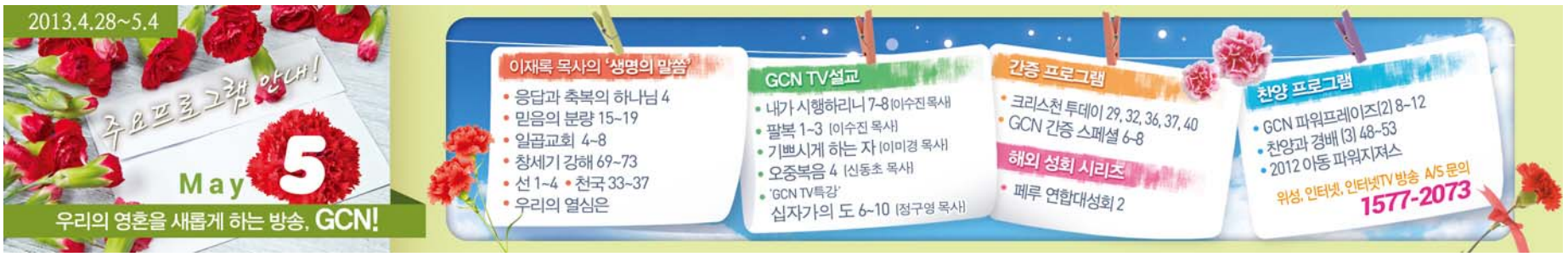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말씀합니다. 돌쩌귀에 고정돼 있는 문짝이 움직임에 한계가 있듯이 편안함만 찾는 사람은 침상에서 구르면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즉 영적으로 자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더 나은 모습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 않고 이제껏 해온 만큼만, 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계속 침노해야 하는데 어느 선에서 멈춰 버리면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맞춰 자신의 의와 틀, 모든 이론과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생각하고 고집 부리니 그 자리에 머물러 영적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그동안 배운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누군가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려 하면 힘들어하고 움츠려 듭니다. 더욱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도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고 안주하니 물이 고여 썩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가운데 자족하는 것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곧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차게 침노해 들어가야 하는데, 영적 성장이 멈춰 있으니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연륜 속에서 경험과 반복된 행함으로 얻어진 능력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변화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영적인 권세와 능력 행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써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김경수 집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2004년 초, 저는 아내 안계영 집사를 통해 대전만민교회(담임 길태식 목사)로 인도받았습니다. 결혼 전이었던 그 당시, 직장이 있는 경기도 성남에서 지내고 있던 저는 주말마다 충청남도 대전으로 내려가 신앙생활을 했지요.

1년 쯤 되자 제 신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한 동시화상예배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점점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재미에 빠졌지요.

창세기 강해 중 ‘공룡’에 관한 말씀은 마치 입체 영화처럼 그려져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 ‘천국’ 설교 등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 소망이 더해 갔지요. 영적인 것으로 제 마음을 채워가니 좋아하던 영화 관람과 술도 미련없이 끊어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새로워지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아동주일학교 보조교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은혜가 더해지니 대전에서 직장을 구해 매일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동주일학교 주교사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어졌지요.

2005년 10월, 저는 당회장님께 직장을 놓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때마침 12월 초, 대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채용 공고가 인터넷에 났지요. 저는 LED 조명 관련 분야에 지원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9년 5월에는 7년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뤘지요.

저는 2002년에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지만 연구소 근무 중 박사학위 취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2009년 가을, 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대학원에 입학했지요. 지난 2월, 저는 태양 에너지 발전에 사용되는 태양전지모듈 관련 분야로 재료공학전공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은 학위 취득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저는 7학기 만에 마칠 수 있었지요. 특히 학위 논문이 마무리 되는 시점인 반년 또는 일 년은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매우 힘들어 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제게 단단히 각오하고 공부하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수업과 과제, 시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지요. 또한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주요 성구를 암송하는 등 말씀을 대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성가대, 아동주일학교 주교사, 교회 새신자관리부, 남선교회 교육부장 등의 사명도 열심히 감당했지요. 겉으로 봐서는 박사학위를 밟는 것 같지 않다고 아내가 말할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연봉도 인상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태양광 업계에 이름이 알려져 2011년부터 매월 기업체에서 태양광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우니 질병이 치료되고 강건해졌습니다”

낸시 카푸르 자매 (인도 델리만민교회)

저는 인도 델리대학교 인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델리만민교회(담임 김상휘 목사)에 출석하기 전 교회는 다녔지만 제 삶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틈틈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한다고 했지만 지치고 소망 없는 삶이었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난소에 많은 미성숙 난자가 생성되고 무배란증을 동반하므로 불임의 한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생리불순이었습니다. 또한 14세 때 척추염 수술을 했지만 완치가 안 돼 양손과 양발에 심한 통증과 두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통스런 질병을 놓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해답을 얻지 못했지요.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신경이 예민해져 다투고 화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몹시 지쳐 죽고만 싶었지요.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라비 어거스틴 형제로부터 이재록 목사님 설교 말씀과 권능의 역사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이재록 목사님 저서 『지옥』을 읽고 은혜를 받아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를 접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들으며 신앙이 새로워졌고, 그 뒤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했지요. 이 말을 들은 저는 치료와 응답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2013년 2월 3일, 델리만민교회에 등록한 그날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예배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됐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말씀에 그날부터 TV 시청을 끊고, 성경 읽기를 즐겨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서를 읽으니 제 마음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또한 제 질병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며 저는 예배 때마다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지요. 3월 25일 밤,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 제게 누군가 “너는 질병을 치료받았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척추염으로 인한 손과 발의 통증과 두통이 사라져 잠을 푹 잘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생리불순도 치료됐습니다. 치료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홍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